

성신강림 대축일

기도서 309 면 (다해)

제1독서: 사도 2, 1-11

제2독서: I 고린 12, 3b-7, 12-13

복음: 요한 20, 19-23

강론

협조자 성령

나 춘성 신부 / 충남 군인천주교회

사회본당에 있을 때는 비록 보좌신부였지만 위로 본당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 사무장, 관리장을 비롯하여 열심한 사목회 임원들이 있어서, 많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 군대에 군종신부로 들어와 사목활동을 하다보니 가장 아쉬운 점이 옆에서 도와줄 협조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주방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고 사무실 일이나 전례, 교회 등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보니 그야말로 군종신부 혼자 통반장 다 해먹는 실정이라 협조자가 아쉽기 그지 없다.

13개 부대를 담당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은 동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모래는 남쪽으로 글피는 북쪽으로 충남 전지역을 흥길동처럼 돌아 다니며 미사를 봉헌하고 사제관이라고 전세 연립주택에 돌아오면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 보고 전화해 줄 곳에 전화하고 그날 온 공문 등 사무처리를 하다보면 자정이 넘어선다. 효과적인 군종신부 생활을 위해 보좌신부를 발령내 주는 법은 없을까 생각하며 흐뭇한 착각 속에 빠져 버리다 내일 일찍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어서 이내 꿈나라로 직행해 버린다.

오늘은 성신강림대축일이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자시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 주시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희망을 주신 날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각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이땅에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해 노력하게 하신다.

사람은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다. 가정, 직장, 나라, 세상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능력을 합하여 협조하여 복된 가정, 복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 가고 있다.

요즈음 신문·방송을 보면 자기 혼자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며 원만한 사회를 이루하면 얼마나 좋을까?

위로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잊지 않고 서로 협조하며 원만하고 안정된 가정, 교회,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자. 나 역시 위로자이시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들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군인신자들을 위해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 갈 것을 다짐해 본다.

술정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3).

소리

민주(民主)라는 이름의 비민주(非民主)

꽃 다운 나이의 전경 6명이 불에 타 죽었다. 그것도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의 손에……. 물론 이 사건은 수백명 광주 시민을 죽이고 출범한 제5공화국과 맥을 같이하는 정부와 정권의 시녀인 경찰, 돈 벌이에 급급한 저질 교수… 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책임질 일이다. 하지만 이는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과격 학생들의 뼈 아픈 실수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너무도 가끔 민주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 민주적 폭력을 본다. 소위 민주 인사라는 虚偽의 아집과 독선도 함께 체험한다. 각목과 돌멩이 화염병을 든 채 미쳐 날뛰는 학생, 노동자들을 지켜보노라면 저것이 민주라면 차라리 민주 안하는 편을 택하리라 하는 착잡함을 느낀다. 민주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生活)는 것이다. 살(生活)지 않는 민주는 오히려 파멸과 혼란만을 가중 시킨다. 미움을 품고 하는 투쟁은 그저 싸움질일 뿐이다. 미움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 악화 시킬 따름이다. 금번 동의대 사건으로 가장 득(得)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두 말 할 나위 없이 현 정권만 유리하게 됐다. 이 호기를 어찌 놓칠 것인가? 그들은 이를 빌미로 순수 양심 세력,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적 비판 세력까지도 철저히 탄압 할 것이며, 이에 징후를 보이고 있다. 폭력은 안 된다. 아무리 선의의 폭력일지라도 결국 독재자들 만을 이롭게 할 뿐이다. 가장 힘 있는 반항은 「비폭력」이다. “돌과 봉동이 화염병을 놓으시오. 그러면 더 큰 힘이 나옵니다.”하신 초기경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술정이 산책



오소서 성령이여!

성사가 효과적인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채워져야 한다.

1. 자효성(ex opere operato) : 성사가 그 자체로 유효한 성사이어야 한다. 즉 합법적인 성사 집행자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성사 집행의 권한과 방법은 교회가 정한다. 사제가 아닌 사람이 집전한 미사, 교구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제의 견진성사가 유효할 수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집행자에 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행된 성사는 비록 그 집행자가 대죄 중에 있을지라도 유효하다. 교회가 그 부족함을 채워 주기 때문이다.

2. 인효성(ex opere operantis) : 아무리 합법적인 성사, 유효한 성사를 받았을지라도 그 성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효성(人効性)이 함께 채워져야 한다. 준비되어진 성사이어야 한다. 성사가 하나의 효과없는 예식으로 전락되



성서와 함께

46. 구약성서의 문학유형(G) : 유행가와 경신례 노래

7. 경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결혼 잔치에서, 일할 때, 그의 단체로 모여 축제를 벌일 때 노래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구약성서 안에서 완전한 가사를 갖춘 노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부분이 토막 노래들로 전해져 온다. 그 이유는 구약의 노래 수집가들의 종교적인 동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살았지만 세속적인 생활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의 특징 덕분에 세속의 수많은 유행가들이 그들의 종교적 심성에 의해서 종교적 의미와 빼대를 갖추게 되는데, 노래 수집가들은 이런 세속적 노래들의 원초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나중에 종교적인 노래로 변화된 것들만을 전해 주었다. 빈 수기 21, 17이하에 나오는 "샘물의 노래"도 필경 일할 때 부르는 세속적 노래였겠으나, 나중에 야훼께서 마실 물이 필요한 당시 백성에게 특별한 샘물을 하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교적 노래로 바뀌어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가(雅歌)일 것이다. 아가는 원래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었으나 나중에 야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데 이용되면서 구약성서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지 않고 성사 본래의 목적대로, 그 형식을 통해 내적변화가 이루어지는 성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 할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도 가끔 아무런 준비 없이 성사에 임하는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시장 속처럼 혼란한 세례식상,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견진성사를 받는 교우들.... 성사는 유효하겠으나 성령의 단 맛을 어찌 알겠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느님, 장차 오실 성령 하느님께서 자유로히 활동하시도록 빕자리를 만들어야겠다.

8. 경신례 노래

제반 경신례 때에 부르던 노래들은 예언서에도 여기 저기 등장하지만 양이나 질로 보아서 시편에 가장 많이 실려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해서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도 있고(시편 30; 92; 116; 118; 138), 어떤 것들은 자연적 제양이나 전쟁에서의 패배 앞에 공동체가 부르는 비탄의 노래(시편 44; 74; 79; 80; 83)도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과거 처지가 먼저 소개되고 야훼 하느님의 도움으로 변화된 복된 처지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로 끝이 맺어진다. 후자의 경우 하느님이 공동체에 베푸셨던 지난 날의 자비를 먼저 상기시키고 야훼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어려움에서 백성을 구해 내시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노래하면서 끝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편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경신례 노래는 개인적인 불행을 호소하는 탄식가이다. 여기에 속하는 노래들은 개인의 번뇌와 고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익울하다는 호소와 개인적인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사는 간청으로 이어진다. 이외에 왕의 등극과 생애, 결혼과 전투와 관련지어 부르는 군왕시편(시편 2; 18; 20; 21; 45; 101; 110; 132)들과 시온을 찬미하는 노래들(46; 48; 76; 87)이 있다.

**축
개
원**

이준호피아노음악학원

☎ 75-1812
송천동 호민촌 비사별
아파트상가 301호
※ 버스운행
원장 이 준호 (안드레아)

**영업부 주부 사원과
남직원을 조대합니다**
(신자 우선대우)

연락처 : 계몽사 전주지사
전화 : 71-0717~8
(0) 71-5827

김 금주 (별라도)
접수마감 : 5월 27일

신뢰속에 밝은 미래를
약속드리는 현대!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 (요셉)
전주우체국 후문 앞

☎ 83-8844-84-3744

권력에 무릎꿇지 않는
한겨례신문

김 종철 (스테파노)
☎ 61-1474, 1120

잠깐!

“부끄러운 목주!”

전 수연(루시아) / 효자우전성당

얼마전 전주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직행버스 안에서의 일이다. 그땐 마침 벚꽃 축제기간 이어서인지 서서 가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버스안이 혼잡했기에 꽂구경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몰라도 급한 일이 있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내겐 그 소란스러움이 그다지 반감지 않아 적당한 자리를 잡아 서 있으려고 안으로 들어 가는데 눈에 띠는 모습이 있었다.

레지오 수첩을 무릎에 펴놓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열심히 목주기도를 바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반가운 마음이 앞서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서서 옆을 들려보다가 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는 아랑곳 없이 열심히 목주를 굴리는 그 젊은 천주교인 옆에는 병색이 가득한 노인이 의자에 기대어서서 목주를 손에 쥐고 중얼거리는 젊은 여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세례받기전 그렇게도 신비롭게만 여겨져 지금까지도 가슴 설레이며 대했던 그 목주가 그 순간은 왜 그토록 부끄럽게만 여겨졌던지…….

현대사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사랑의 부재시대’라고 일컫는다.

오로지 ‘나’와 ‘내것’ 만을 향해 열려 있는 기도— 사랑!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눈앞에는 초록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가와 계신다.

사랑을 창조하시고 실천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향해— 그리고 내 주위의 모두를 향해 우리 모두 닫힌 문을 활짝 열어보자.

교구소식

1. 교구재정심의회 : 16일(화) 오전10시30분 교구청 회의실

2. 교구호인강좌 : 28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타

3. 제5회 전주교구 ME 가족모임 : 6월6일(화) 09시~17시 장소- 전주해성학교 강당

4. 성모님께 드리는 글 공모전 : 주제- 성모님과 자신의 신앙생활 대상- 중·고등부
학생 형식-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시, 수필등 자유롭게 시상-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3명 제출처-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구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3명 제출처-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구
청소년 성체대회 준비위원회 앞·마감- 89년5월20일 입상작발표- 89년 5월27일

5. 옥봉양로원 할머님들 초대 : 금년 저희 양로원에서는 건물개축을 하고 아래와 같이
할머님들을 모집합니다. 1) 의지할 곳 없고 무의무학하신 분

2) 가정사정으로 인해 시설 거주를 원하시는 분

3) 신앙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분

연락처 : (0654) 7-2549 사회복지법인 성연복지원 원장 조소피아 수녀

6. 임진각 남북통일 기원미사 : 6월6일 오후2시 신청접수- 정의구현 사제단 사무실
전화85-2966 회비5,000원

7. 「천주교 방송시간 개설」: 매일 밤11시45분~12시(주일제외) - 오늘을 보내며-
기독교 이리방송국(CBS) 1314K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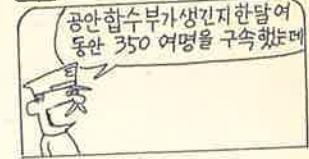
8. 전동 소년 어린양의 모후Cu 월례회 : 5월14일 오후1시30분 장소- 전동성당

9. 통일열사 조성만(요셉) 1주기 추모미사 : 15일 오후3시 전동성당

10. 광주항쟁 9주기 추도미사 : 18일- 전주교구 전 성당(교구정의평화 위원회)

축! 영명 : 성 마티아(14일) 범석규 이성우 성 에릭(18일) 윤에력 신부

요십이(823) 김병오



사무장 채용

자격 : 고졸이상 학력자로서 영
세한지 3년이상 된 남자

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본당신
부·추천서·주민등록등본

* 5월 21일 선정

연락처 : 이리영동동천주교회

☎ 52-2240

축! 개업

조안나청탁

* 모든 의뢰를 정다

전주시 남노송동 557-7

(전북은행 노송동지점앞)

☎ (사) 87-3949

(자) 85-0785

조영자(만나)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양재

홈패션학원

원장 김형문(대견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86-2715

생산직 사원모집

1. 인원: 00명 2. 자격: 1) 학력제한 없음
2) 만 18세이상 여자

3. 재출신서류: 1) 자필이력서(전화번호명기) 2) 주민등록등본

4. 접수기간: 1989. 5. 15~5. 20 오후 1시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라오며 서류는 당사에 직접 접수바랍니다

전주시 금암1동 1556-3
☎ 5-3697, (야) 83-1813

루트전자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텍트렌즈

원장 : 전문의 마기환

한남회(비리시다)

오거리 국민은행 건너편 2층

☎ 85-2203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이들.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수녀원 5-1714 보좌신부 최 용 준
유치원 77-1712 사목회장 황 의 옥
77-1711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세계평화와 자녀들을 위해 정성껏 두손을 모읍시다. 성모성월동안 초(컵초-빈첸시오의 집), 꽃 수선로 봉헌 바랍니다.
 2. 새 애비자 교리빈 : 복요일 오후8시 꾸리아-19일(금) 어머니미사후 성모회-19일(금) 어머니 미사 후 하늘의 문 꾸리아-다음주일(21일) 오후2시 사복회-다음주일(21일) 공식미사후
 - 제1지구 어린이 신임대진치 : 오늘 오전9시30~오후5시 턱진왕릉 어린이들의 매일미사 참여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당일 행사관계로 보당 어린이미사 없습니다.(오후3시)5. 세계설체대회 기념奔驰 및 스티커 : 사무실(奔驰-천원, 스티커-이천원)
 - 어비이 사은잔치에 어씨주신 청년연합회, 빈센시호외, 성심부녀회원들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교사회 밤기인 축회 : 18일(목) 오후8시 사제관 8. 구역장및 반장연수회 : 16일(화) 오후2시 □ 지난주봉헌금 : 1,522,850원 □ 교무금 : 916,500원

* 금안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왕수해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 구역장, 민장님 회의 : 오늘 공식미사후
 - 꾸리야 회의 : 차주 오후2시
 - 금오회 : 차주 공식미사후
 - 설지순례 : 일시—6월6일 장소—새남터, 철우산 참가비5,000원
 - 금주전례 : 해설—신동천 목사①청하용 (2)김숙
봉현—김종섭부부 기도—31반, 32반, 33반 복사—3
개호 서법석
 - 차주전례 : 해설—심상기 목사①최봉호 ②황명복
봉현—나인구부부 기도—34반, 35반, 36반 복사—김
명수 박영섭
 - 미시안내 : 예언자의 모호Pr. 차주—능하신 동정녀Pr
 지난주봉헌금 : 627,170원 초·중·고 52,330원 합계679,500원
 교무금 : 444,000원

7. 미사안내 : 예언자의 모후Pr. 차주—능하신 동정녀Pr
□ 지난주봉헌금 : 627,170원 초·중·고 52,330원 합계679,500원
□ 교무금 : 444,000원

* 덕진

사재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1. 성화회 : 광식미사후(사복회의실)
 2. 베드로회 : 광식미사후(2층회의실)
 3. 예루살렘부녀회 : 16일(화) 오전11시
 4. 금주 구역미사 : 17일(수) ~ 턱진20반 19일(금) ~ 턱진15반 오후2시 미사를 하지 않으신 구역은 신청하세요.
 5. 5월 성고성생활동 미사전에 목주기도를 합니다.
 6. 본당 신축헌금 담배에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7. 금주전례 : 해설-민운식 복사-독서-성가정회 기도-떡전4반 차주전례 :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사회복지분과 기도-떡전5반
 8. 본당 신축당사 신입액 : 127,625,000원
 9. 금주 본당 청소 : 평화의 모후Pr-13일 오후2시
□교부금 : 59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55,560 원

* 도사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오늘은 성신강림대축일입니다.
 2. 본당의 날 행사 : 야외미사 21일 11시 장소 - 닉진 왕능 예비군
후원장
 3. 모임 : 오늘 광설미사후 - 안나희, 글라라회 20일 - 동성회 차주
광설미사후 - 구역장회
 4. 구역미사(16일) : 화진
 5. 나눔진치(17일) : 판복2·4구역
 6. 구역방문 : 16일 - 동산3·5구역 17일 - 동산4구역 19일 - 동산7구역 20일 - 동산6구역
 7. 금주청소 : 하늘의 문Pr. 차주 - 자비의 모후Pr.
 8. 금주전례 : 해설 - 약기설
차주전례 : 해설 - 한기침
독서①박병의 ②유보연
독서①곽영철 ②박금화

□ 지난주봉헌금 : 311,740원 □ 교무금 : 219,000원

* 서신동

사제관 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4-2214 사목회장 박병역

1. 벽돌현금 및 폐품수집 : 우리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룹니다.
 2. 가정방문안내 : 16일(화) 1구역~1만, 2만 17일(수) 1구역~3만
19일(금) 1구역~4만 23일(화) 2구역~1만 24일(수) 2구역~2만,
3만 25일(목) 3구역~1만 26일(금) 4구역~1만 30일(화) 4구역~
2만 3만 31일(수) 5구역~1만 6월 1일(목) 5구역~2만, 3만 6월 2일(금)~
어울릴 시간~오전9시부터(시간을 천천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미사가 있을 때는 미사 후 즉시(구역장 반장님들
은 차는 험조 바랍니다). 3. 5월 21일: 광식미사후 험조 실시
 4. 금주모임 : 성조회~광식미사후 올뜨레아~광식미사후 차주모
임: 꾸리아~광식미사후. 금주보당청소년안내: 평화의 모후 차
주~매괴의 모후 금주미사진례: 해설~선종헌 독서① 이상규 ②
이순근 차주: 해설~선종헌 독서① 위길무 ② 이인준
□ 지난주봉헌금: 271,090원 □ 교무금: 148,000원

* 송천동

사제관 74-8873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병율
수녀원 4-1142

※ 성지순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1. 오늘의 모임 : 사복회, 안나회, 바울로회, 해상파울로회
 2. 본당경로전치 : 19일 오전9시30분 대상—요셉회, 안나회(성실부녀회 주관)
 3. 신협가입안내 : 가입금1천원 셀링기금1천원이상(도장지참)
 4. 구역 반 협체제 : 16, 17일 한세대 한 분씩 참석바람(월보참조)
 5. 병자봉선제 : 24일 대상자는 사무실에 미리 연락바람
 6. 다음주일은 교무회·봉헌주일 정성껏 봉헌 바람
 7. 금주본당청소 : 송천2구역 20일 오전11시
 8. 금주전례 : 해설—이경창 목사·봉사·박해성 집인백
기도·봉헌·생명Pr.

차주전례 : 해설·김광자 목사·봉사·송기성 최홍섭
기도·봉헌·타없으신 어미NPr.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1. 오늘: 성신강령대축일 모임 - 올드레이, 청년회, 북전주자구 어린이 죄상대회 오후 혼례 신랑 - 죄나증(요환) 신부 - 김명희(12시)
 2. 백보나 수녀님 언증회: 15일~26일 *기도바람
 3. 제대회 단합대회: 15일 *장소 - 야가페정양원
 4. 부녀회·제대회·자모회: 18일 오전10시 세미나를 위한 미사후 모임있음 5. 병자방문: 20일 오후4시30분
 6. 성령기도회: 22일~25일 오후8시
 7. 다음주일: 2차현금있음 모임 - 꾸리아, 12사도회, 청년회 다음주 일혼례 - 이대현(아고비) 김연근(프란치스카) - 12시
 8. 고마리야 안수기도: 26일 오후8시~10시(안수기도후 감사미사 있음) 9. 금주본당청소회 - 평화의 모후 토-인자하신 모후
 10. 금주전례: 독서·기도-이규철 고해자
봉헌·기도-김만수 한계자
차주전례: 독서·기도-박종윤 고영숙
봉헌·기도-양백용 김정아

□ 지난주봉헌금: 479,190원 □ 교무금: 271,500원

*인후통

사제관 86-8876 주임신부 서용복
수녀원 86-8875 사목회장 정수일
사무실 86-5022

1. 보통 삼증기도 : 15일부터 합니다.
 2. 첫 영성체 : 21일 오후4시 이린이마사중 첫고백 2일 오후3시 영세20일 오후4시
 3. 어른 영세식 : 6월8일 준비 잘 하세요.
 4. 효도 친차에 협조와 수고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5. 제대회 월례회의 : 18일 어머니 미사후
 6. 청년 성기대 성기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당에서 성가에 관심 있는 청년 선자및 애비선자 분들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7. 성체 조례에 적극 참석하시고 이우에도 전환시다.
 8. 성당에서 의복과 신발을 단정히 합시다.
 9. 주일 어린이 교리와(3시) 미사에(4시) 자녀를 꼭 보내주세요.
 10. 신설 단체에 가입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됨시다.
 11. 다음주 공식후 안나회 월례회의
 지난주봉헌금 : 839,660원
 성전 신축을 위한 2차헌금 : 390,04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